

1m 퍼트...너 때문에 미쳐!

신지애를 통해 본 근거리 퍼트

신지애(23·미래에셋)가 1m 퍼트 때문에 다 잡았던 우승컵을 놓쳤다. 28일(한국시간) 끝난 기아클래식 최종 4라운드 마지막 18번홀에서 1m 퍼트를 놓쳐 우승을 빼앗겼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이 편할 리 없다. 1m 퍼트는 넣어야 본전이다. 실패했을 때 밀려오는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선 후유증이 크다. 시즌 내내 퍼트 불안에 시달리는 건 그나마 다행이고 몇 년 동안 회복이 안 돼 스럽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프로선수들에게 퍼트는 어떤 존재일까. 타이거 우즈는 1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출전을 앞두고 “하루 수 천 개의 볼을 치며 퍼트 연습을 했다. 이제는 옛날 감각을 완전히 되찾았다”고 말했다. 우즈가 누구인가. 한때는 ‘퍼트 종결자’로 이름을 날리던 골프황제다. 그런 우즈도 퍼트 연습을 가장 많이 했다고 했다. 그만큼 퍼트는 어렵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요인이 더 작용한다. 또 절대감각이 필요하다. 미 PGA 투어 선수들의 경우 1.2m 거리에

넣어야 본전...실패 후유증 심해 심리 불안 우즈, 지금도 미스샷 지존 서희경 1년간 부진 시달려

서의 성공확률은 90.9%. 1.8m에선 69.8%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신지애에게 이번 일은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역전 승만 하다 역전패 했으니 마음의 상처가 남겠지만 진정한 골프지존이 되기 위해선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70cm 퍼트 놓치고 1년 마음고생

국내 여자골프의 지존으로 활약하던 서희경은 작년 5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했다. 롯데마트여자오픈 최종 3라운드 마지막 18번홀에서 70cm 버디 퍼트를 놓쳤다. 그 바람에 연장전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 한번의 실수는 서희경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졌다. 시즌 내내 쇼트퍼트의 탓에 걸려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년 간 12승이나 올리면서 한창 주가를 올렸던 서희경은 이날 이후 알

수 없는 부진에 빠졌고, 결국 2010년 우승이 없었다. 서희경은 “그 퍼트를 놓치고 나서 후유증이 1년 내내 지속됐다.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

●PGA 톱 프로도 울게 한 1m

“위대한 퍼터”라고 불린 타이거 우즈도 쇼트퍼트의 탓을 피해갈 수 없었다. 환상에 가까운 퍼트도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렸지만, 스캔들 이후 예전의 날카로운 퍼트 실력이 사라져 골프황제의 위지마져 빼앗겼다.

우즈는 90cm 이내의 퍼트를 절대 빠뜨리지 않는 골퍼 중 한 명이었지만 이제 옛말이 됐다. 종종 1m도 안되는 짧은 거리의 퍼트를 자주 빠뜨리면서 그의 심리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비제이 싱도 1m 퍼트에 망을 쳤다. 2005년 PGA투어 혼다클래식 연장 두 번째 홀에서 70cm가 조금 넘는 퍼트를 놓쳐 우승을 놓쳤다. 싱은 우승상금보다 약 5억원이나 적은 상금을 받았다. 1m 퍼트에 5억원을 날린 셈이다.

주영로 기자 na182@donga.com 트위터 @na182

문제의 1m 퍼트 순간이다. 신지애가 28일(한국시간) 인더스트리 힐스 골프 클럽에서 벌어진 기아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 18번홀에서 버디 퍼트를 시도하고 있다. 홀 컵을 스치면서 나온 볼 때문에 우승을 놓쳤다.

인더스트리힐스 클럽(포니아 주) | AP 연합뉴스

편집 | 민성기 기자 min3654@donga.com 트위터@min3654

“생활체육 세계화 적극 동참”

국민생활체육회-한국국제협력단 MOU 체결

국민생활체육회(회장 이강두)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사장 박대원)이 2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서 이강두 회



국민생활체육회 이강두 회장(왼쪽)과 한국국제협력단 박대원 이사장이 양해각서 체결 후 각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생활체육회

장은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국제위상이 높아졌다. 이제는 지구촌 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생활체육 보급을 위해 국민생활체육회와 한국국제협력단이 함께 노력하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대원 이사장은 “대외무상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생활체육의 세계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생활체육 전문가 파견 및 현지연수 ▲저소득 국가에 대한 생활체육 보급 프로젝트 공동수행 ▲해외 생활체육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 등에 관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 회장을 맡은 이강두 회장은 지난해 아프리카 11개국에 축구공 2010개를 보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이 동참했다. 이 회장은 올해 동남아시아에 자전거 500대를 기증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양형호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경정 소식

당산스포츠타운, 지역주민 위해 자전거 50대 기증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당산스포츠타운(경북·경정 장외지점)이 30일 서울 영등포구청이 운영하는 자전거 주차타워 무인자전거 시설에 700만원 상당의 자전거 50대를 기증한다. 무인자전거 이용 시설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는 무료시설이며 영등포구청 파장과 당산역 4번 출구 인근에 설치되어 있다. 당산스포츠타운 관계자는 “이번 계기를 통해 계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과 공헌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성스포츠타운, 자전거 무상수리 순회서비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유성스포츠타운이 대전지역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무상수리 순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대전 시내의 주요 아파트 단지과 관공서의 신청을 받아 월 1회, 2일(토, 일) 동안 대전지역 주민을 찾아가는다. 브레이크케임, 자전거 튜브 등 기본적인 소모성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고 일반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자전거 수리를 해준다. 자전거 무상수리 순회 서비스는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생활체육 동호인들 모여라”



내달 24일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25개 자치구 2만5천명 열린 대결

개막식은 25개 구청 2만5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부문’과 ‘동호인 경기부문’으로 나누어 치른다.

시민참여 부문은 줄다리기, 10인 11각 달리기, 7인승부차기, 무지개줄다리기, 각구 대항 응원전이 열리게 된다.

동호인 경기 부문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등 25개 종목이 5월 15일까지 한강시민공원 등 시내 곳곳에서 열린다. 올해부터는 야구, 골프, 수영, 댄스스포츠 4개



4월 24일 서울시 25개 구청 2만 5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대회의 화려한 개막식 장면. 사진제공 |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종목이 신설됐다.

전라남도도와 서울시 생활체육 동호인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야구, 등산, 골프, 당구 4개 종목 시도교류전도 열린다.

이 밖에도 번외 종목으로 가족 인라인스케이팅대회, 플라잉디스크, 무빙 바스켓볼, 부

부 2인 자전거 대회 등도 참가할 수 있다.

양형호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경정 출주표 30일														
★우승후보 ◎우승도전 ○상대 △복병 출주표는 경정운영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상제출: 경정모터스(여성구, 김용, 백상민)														

3월 30일 출주표

번호	기	선수	나	이	체	종	승	승	연	연	연	연	연	연
번호	기	선수	나	이	체	종	승	승	연	연	연	연	연	연
제[1] 경주 일반경주(1,800m)11:20														
1	1	권영호	42	55	6.47	21.1	31.6	73.7	76	31.0	9	△	◎	
2	8	송효석	31	55	3.71	14.3	14.3	28.6	24	16.3				
3	5	주은석	29	58	5.71	23.5	35.3	58.8	22	43.0	11	★	★	★
4	1	권오현	38	60	3.80	0.0	0.0	33.3	83	45.3		○		
5	2	김재운	32	57	3.27	6.7	13.3	26.7	60	37.2	10	◎	△	△
6	2	이동세	39	58	5.95	10.5	31.6	63.2	9	29.9	13	◎	◎	◎
제[2] 경주 신인경주(1,800m)11:45														
1	10	임태경	23	48	3.25	0.0	25.0	25.0	39	27.6		△	△	
2	10	구본수	29	61	5.67	16.7	16.7	66.7	43	63.1		◎	◎	★
3	10	김태규	27	55	6.67	33.3	50.0	66.7	56	47.7		◎	◎	◎
4	10	이경성	28	60	7.67	33.3	66.7	83.3	80	31.0		★	◎	◎
5	10	박준호	25	62	5.33	16.7	50.0	50.0	95	28.4		△		
6	10	박태진	24	52	2.83	0.0	0.0	16.7	28	47.1				
제[3] 경주 일반경주(1,800m)12:10														
1	6	안지현	26	55	5.81	12.5	50.0	68.8	23	22.4	10	★	★	★
2	1	염현철	36	62	4.47	6.7	26.7	40.0	40	29.4		△	△	△
3	7	윤동우	28	58	3.92	0.0	16.7	50.0	86	24.4	13			
4	2	송준해	35	61	6.06	29.4	47.1	64.7	54	25.9	11	◎	◎	◎
5	1	임인석	37	61	4.60	6.7	26.7	40.0	26	28.9				
6	1	장영태	36	57	7.00	30.0	55.0	70.0	29	39.1	12	◎	◎	◎
제[4] 경주 일반경주(1,800m)12:35														
1	1	김현환	38	57	3.85	7.7	23.1	30.8	77	20.0		○	◎	△
2	6	손재민	29	60	6.06	35.3	35.3	58.8	51	28.9	13	◎	◎	△
3	1	김영록	36	62	2.00	0.0	0.0	13.3	31	40.0	12			
4	1	김태태	35	54	6.63	26.3	47.4	68.4	49	28.4	14	★	◎	◎
5	2	김성필	34	53	5.72	27.8	38.9	50.0	33	44.3	15	◎	◎	★
6	3	서지혜	29	52	4.00	0.0	8.3	33.3	91	54.7		△	△	△
제[5] 경주 일반경주(1,800m)13:15														
1	1	정용진	39	54	6.24	29.4	41.2	70.6	42	28.0	15	◎	◎	◎
2	5	여현창	32	62	3.36	7.1	14.3	28.6	2	40.2	14	★	△	
3	8	전두식	31	56	3.53	0.0	5.9	29.4	41	32.2		△		
4	2	김기환	38	52	5.71	17.6	47.1	52.9	70	25.6	11	◎	◎	★
5	2	김성희	39	53	5.18	11.8	41.2	52.9	17	14.3	12	△		
6	2	공상희	43	57	5.29	14.3	28.6	52.4	1	30.6		○	◎	
제[6] 경주 일반경주(1,800m)13:40														
1	4	이동우	36	58	3.81	6.3	18.8	31.3	69	48.9		★	◎	◎
2	1	김창규	40	59	6.53	23.5	47.1	70.6	88	42.4		◎	◎	★
3	6	박재경	31	57	3.93	13.3	20.0	46.7	46	31.0	15	△	◎	
4	7	배해민	30	55	7.05	15.0	40.0	85.0	14	21.2		○	◎	△
5	4	이경민	40	59	3.71	0.0	0.0	28.6	79	24.7				
6	5	이종인	33	55	3.53	13.3	13.3	26.7	34	39.3	13			

번호	기	선수	나이	체중	평균속도	승률	승연	연승	연승연	연승연	연승연	연승연	연승연	연승연
제[7] 경주 일반경주(1,800m)14:05														
1	7	정종훈	31	54	3.73	6.7	20.0	26.7	71	50.0		◎	◎	◎
2	1	강창호	38	60	3.43	7.1	21.4	28.6	30	27.7		○		
3	3	허명욱	32	56	4.53	6.7	6.7	46.7	55	48.3		△	◎	△
4	7	장수영	31	54	7.60	30.0	50.0	80.0	20	50.6	13	★	★	★
5	6	권일혁	30	59	4.13	0.0	18.8	25.0	12	23.5				
6	4	지현욱	33	62	4.43	28.6	28.6	28.6	8	21.4	15	△	△	
제[8] 경주 일반경주(1,800m)14:30														
1	2	이장호	33	67	7.29	35.3	64.7	70.6	6	13.8	14	◎	◎	△
2	2	김정민	35	59	4.93	21.4	35.7	50.0	44	22.9		△		
3	4	이종환	37	55	5.88	18.8	43.8	62.5	66	48.8		★	★	★
4	8	오승철	28	60	4.07	6.7	6.7	33.3	74	19.0				
5	5	김도환	35	61	4.00	5.6	16.7	38.9	7	33.7	15	△	◎	◎
6	4	김경민	34	58	2.86	0.0	7.1	14.3	68	44.4		◎		
제[9] 경주 일반경주(1,800m)14:55														
1	1	박광혁	42	53	4.63	6.3	18.8	43.8	89	23.4	15	★	★	◎
2	4	신동길	33	57	6.90	35.0	60.0	65.0	37	14.8		◎	◎	△
3	9	정현욱	30	58	1.71	0.0	0.0	0.0	84	30.6				
4	8	이동준	26	55	6.35	23.5	52.9	58.8	19	43.2		◎	◎	★
5	3	박정아	32	50	4.73	13.3	33.3	53.3	11	37.1	14			
6	1	권영호	42	55	6.47	21.1	31.6	73.7	76	31.0	1	△	△	△
제[10] 경주 일반경주(1,800m)15:25														
1	2	김재호	32	57	3.27	6.3	13.8	26.7	60	37.2	1	△		
2	1	이성훈	36	60	5.47	15.8	31.6	42.1	48	40.0				
3	8	유승철	28	63	2.88	6.3	6.3	48.8	16	32.9		◎	△	△
4	6	안지민	26	55	5.81	12.5	50.0	68.8	23	22.4	3	◎		
5	2	사재훈	37	56	6.73	23.8	47.6	66.7	9.2	39.1		◎	★	★
6	2	윤재일	37	56	6.03	35.7	50.0	57.1	27	40.0				
제[11] 경주 일반경주(1,800m)15:55														
1	2	송중해	35	61	6.06	29.4	47.1	164.7	54	25.9	3	△	△	△
2	2	김기찬	38	52	5.71	17.6	47.1	52.9	70	25.6	5	◎		
3	3	정재용	30	60	1.31	0.0	0.0	0.0	4	34.8				
4	2	박성민	36	54	8.28	55.6	72.2	83.3	52	40.3		★	★	★
5	7	배창호	29	58	2.26	0.0	0.0	14.3	67	46.1				
6	5	유은정	29	58	5.73	23.5	33.3	58.8	22	43.0	1	◎		
제[12] 경주 일반경주(1,800m)16:25														
1	6	박석준	34	60	3.00	0.0	20.0	20.0	62	34.8		○	○	○
2	1	장영태	36	57	7.00	30.0	55.0	70.0	29	39.1	3	★	★	★
3	2	손성진	39	53	5.18	11.8	42.1	52.9	17	14.3	5	△	△	△
4	2	유근재	32	59	6.50	33.1	35.6	36.2	61	40.9		△	△	△
5	1	김영목	31	62	2.00	0.0	0.0	13.3	31	40.0	4			
6	7	황태희	31	57	4.74	15.4	45.4	53.8	63	32.7				